

# 베이비붐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방 하 남\*

## I. 베이비붐 세대의 구성과 규모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이 급증한 시점(1955년)에서부터 산아제한정책의 도입을 통해 눈에 띄게 출산율이 둔화되는 시점(1963)까지 9년의 기간 동안 출생한 세대를 지칭한다. 본 세대의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713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비율로는 1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만 47세에서 55세의 연령대에 걸쳐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10여년간 본격적인 퇴직과 은퇴의 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과급효과와 개인들의 노후준비상태에 대한 사회

<표 1>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인구규모

	전 체	남 성	여 성
47세(1963년생)	841,625	428,648	412,977
48세(1962년생)	854,550	431,465	423,085
49세(1961년생)	858,141	429,629	428,512
50세(1960년생)	848,690	424,525	424,165
51세(1959년생)	823,550	414,400	409,150
52세(1958년생)	784,111	396,251	387,860
53세(1957년생)	742,633	374,712	367,921
54세(1956년생)	708,728	355,781	352,947
55세(1955년생)	663,319	331,806	331,513
전 체	7,125,347	3,581,217	3,538,13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박시내·심규호(2010)), 「베이비붐 세대의 현황과 은퇴효과 분석」에서 재인용.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phang@kl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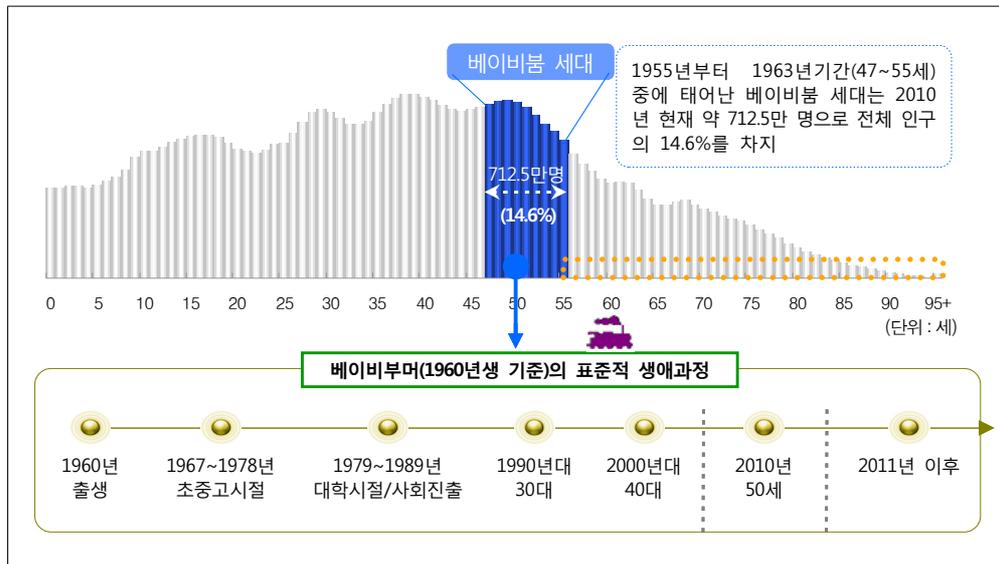
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표 1>에서는 2010년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별 인구규모가 성별로 제시되어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9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연령층은 60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의 규모로 추정되고 각 연령층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규모는 큰 차이 없이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

## II.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과정

흔히 ‘58년 개띠’로 지칭되는 본 ‘베이비붐’ 세대는 9년의 기간에 걸쳐 태어난 출생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가장 일찍 태어난 연령층과 가장 늦게 태어난 연령층 사이에 생애과정이나 사회적 경험에 있어서 동질성이 약하고 오히려 내부적 이질성이 더 강할 수 있다. 본 세대는 1950년대에 태어난 ‘형’ 세대와 그 이후 1960년대에 태어난 ‘동생’ 세대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생’ 세대에는 ‘386’세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형’ 세대와는 사회적 경험과 의식에 있어서 생각보다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에는 ‘형’과 ‘동생’ 세대를 가름하는 분기점인 1960년생(2010년 기준 50세)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적인 생애과정을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과정(2010년 50세 기준)



자료: 통계청(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내일」.

생애과정으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는 1960년 후반부터 1970년대에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대부분(약 70%)은 1980년대 초에 사회진출을 하였으며 대학을 진학한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대학생활을 한 후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였다. 즉, 본 세대는 사회적으로 격동의 시기인 1980년대에 대학생생활이나 첫 사회진출을 한 것이다.

교육 기회와 관련하여 이 세대의 초등학교 진학시기 취학률은 100%에 근접하였으며 대부분(1956년생부터)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1966년)의 혜택을 보았고 1958년 ‘개띠’ 이후 연령층은 고교평준화(1974년) 이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베이비붐 세대 전체로는 1970년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대학을 진학하였으며 대학 진학률은 30%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베이비붐 세대 중 1960년대에 출생한 집단의 경우 1981년의 대학 정원보다 30%를 더 뽑는 졸업정원제의 실시로 대학 진학 기회의 갑작스런 확대를 경험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졸업장’이 갖는 소수의 프리미엄은 베이비 부머들 중 ‘동생’들보다는 ‘형’들이 더 많이 향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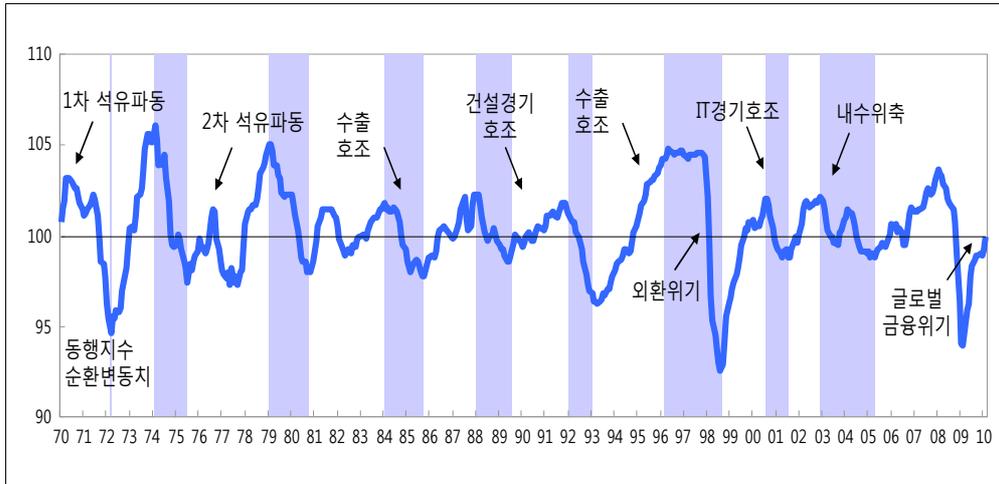
<표 2>에 제시된 교육수준 분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46% 이상은 고졸학력을 가지고 있고, 약 25% 이상은 중학졸업 이하의 학력이어서 전체적으로는 70% 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학졸업자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학력 구성은 그 이후 세대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2005년 기준 30대 중에서는 48% 이상이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게 되었고 20대 중에서는 거의 70%가 그러하여 대학졸업이 갖는 상대적 프리미엄이 그 이후 세대로 오면서 급격하게 약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급격한 고등교육 기회의 팽창은 1980년 중반 이후 지속된 대학교육의 공급과잉에 따른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층의 구직난과 고실업의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표 2>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 분포

	이전 세대		베이비붐 세대 (42~50세)	이후 세대	
	60세 이상	51~59세		30~41세	19~29세
초졸 이하	3,974 (63.5)	1,166 (26.3)	623 ( 8.7)	120 ( 1.2)	26 ( 0.4)
중학교	848 (13.5)	1,053 (23.7)	1,188 (16.7)	361 ( 3.7)	83 ( 1.1)
고등학교	895 (14.3)	1,484 (33.5)	3,286 (46.1)	4,562 (46.7)	1,975 (27.0)
대학교	475 ( 7.6)	619 (14.0)	1,752 (24.6)	4,231 (43.3)	5,045 (68.8)
대학원	62 ( 1.0)	114 ( 2.6)	281 ( 3.9)	498 ( 5.1)	201 ( 2.7)

자료 : 인구센서스(2005년) 10% 표본자료.

[그림 2] 베이비붐 및 이전·이후 세대 생애기간 동안의 경제상황 연표



자료: 통계청(2010), 「통계로 본 베이비붐 세대의 어제, 오늘,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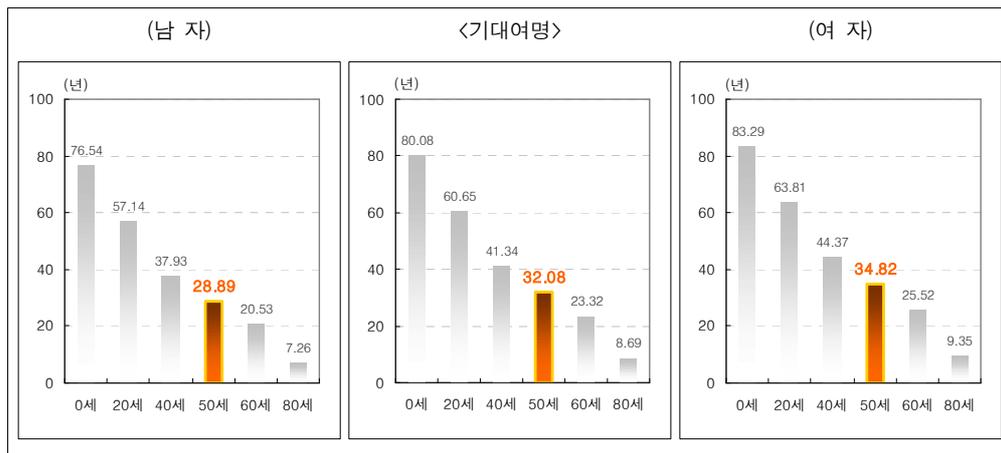
[그림 2]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거처온 생애기간 동안의 경제상황 연표를 제시하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시점은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였을 것이다. 그 시기는 1980년대 중반의 수출산업 호조기를 거쳐 88올림픽 특수, 1990년대 초반의 건설경기 호조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그만큼 베이비붐 세대는 모든 학력계층이 확대·팽창하는 경제사회적 자원과 일자리 기회의 혜택을 보았을 것이고 초기의 직업경력도 강한 상승이동(upward mobility)의 조류를 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회가 확대된 만큼 동기세대의 인구규모도 커서 보다 높은 경제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한 세대 내의 경쟁도 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 본 세대는 한창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던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에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까지 약 10년의 기간 동안 근로생애의 정점을 맞이하게 되면서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 여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는 근로생애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으며 제일 높은 연령층부터 점차적으로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근로생애 전체적으로 볼 때 베이비붐 세대는 초반은 확대된 기회, 폭넓은 선택으로 시작하였으나 생애중반의 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애후반은 축소된 기회, 비자발적 퇴장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굴곡이 많은 생애를 살았다고 평가된다.

### Ⅲ.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전망

베이비붐 세대가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년퇴직을 앞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 퇴직 후에도 앞으로 약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그림 3 참조). 본 세대가 근로생애를 시작하던 1980년대 중반경에는 인구 전체의 기대수명이 약 60세, 50대 이후의 기대여명이 약 15년이었으나 퇴직을 앞둔 지금은 기대수명이 80세, 50세 시점의 기대여명이 약 32세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있다. 그런데 본 세대는 기업의 평균정년은 57세이고 실질퇴직은 평균 53세에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적 생애주기모형에 따라 ‘합리적’ 생애설계를 한 사람들도 은퇴 이후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에 있을 것으로 보아 향후 경제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큰 도전으로 남아 있다. **KKL**

[그림 3] 한국인의 연령별 기대여명(2008년 통계청 생명표 기준)



자료 : 통계청, 「생명표(2008)」, 국가통계포털(KOSIS).